

부부싸움 다음 날

-“밤새 요리학원 다녀왔어? 음식맛이 보통이 아닌데. 난 지난밤에 마누라가 바뀐 줄 알았어!”

-“밤새 철들었나? 얼굴이 두툼해졌군요. 이러다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녜요?”

-“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보다 먼저 별거벗은 내 알몸을 본 여자가 있었어. 그렇게 알고 싶으면 말해줄까? 바로 어머니야!”

-“흥,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살 줄 알아. 인명은 재천이라구.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평평거리며 살 수 있다구.” 이런 말은 들은 당신이 아내라면 이렇게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.

-“뭐라. 인명은 재천이라구? 이제 인명은 재처인지 몰라.”